

2016. 1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6년 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사	
2016.1.26	대전MBC 대회의실	7/10	6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송인덕, 박희원, 성정모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김미리 편성
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5	7	-	1	13		13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0	3	-	13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9건	9건	12월
교양	시사프로그램 시청자 마음을 감싸줄 수 있는 내용도 포함	시사프로그램 시청자 마음을 담은 따뜻한 내용 소개	12월
교양	토크 프로그램 여성학자 섭외 시의적절	토크프로그램 출연진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게 섭외	12월
교양	특집 다큐멘터리 영상이 돋보여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역량 강화	12월
보도	현수막과 플래카드 단어 사용 정확히	현수막, 플래카드 단어 구별 사용	12월
교양	특집 다큐멘터리 전체 구성을 매끄럽게	특집 다큐멘터리 사전 기획과 전체 구성 꼼꼼하게 진행	12월
기타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현업 활용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제작진 활용	12월
교양	토크 프로그램 시청자들과 공감할 수 있게	토크 프로그램 시청자관심을 갖는 주제 선정하여 공감하는 내용으로 구성	12월
보도	대전의 고유특색(과학, 문화 융합) 담은 보도 필요	과학, 문화 관련 뉴스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어	12월
편성	DMB 프로그램 편성 시청자들 눈길가게	DMB 프로그램 편성 시청자들이 눈길을 끌게끔 편성	12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변동사항 없음) 임기: 2014. 5. 27.~2016. 4. 26.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오덕성	충남대 부총장 세계과학도시연합사무총장	한국도시 행정학회	과학기술단체	위촉
부위원장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단체	위촉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촉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촉
위원	박희원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유임
위원	한찬희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대덕클럽	과학기술단체	위원 유임
위원	유덕순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보호 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형주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국영화 교육학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송인덕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언론단체	위원 유임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1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허참의 토크&조이 [노래하는 교장선생님, 방송호] 편(1월 22일)을 시청하였다. 처음 제목을 보고 “누구지? 못 듣던 사람인데. 그냥 재미있고 조금은 특이한 사람인가 보구나” 하고 방송을 시청했다. 방송 제목 그대로 교장선생님인데 노래도 하고 앨범도 낸 교장선생님이구나 하면서 시청했다. 등장부터 남다르게 호랑이탈을 쓰고 등장했다. 순간 방송의 몰입도가 UP되기 시작했다.</p> <p>이날 방송은 모험상당가로 유명하다는 교장선생님, 노래 앨범까지 내었다는 교장선생님이란 소개와 더불어 방송호 교장선생님과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p> <p>전체적인 이야기는 모험상당의 소개, 모험상당가로 길을 걷게 된 사연과 모험상당을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재능을 적성으로 이어준 사례, 학교폭력3위였던 학교를 8개월 동안 단 1건도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로 만든 이야기, 담배냄새로 양치질하기 힘들다는 여학생 이야기를 듣고 여학생 화장실 앞에서 노래를 불러 그 이야기가 SNS를 타고 소문이 퍼져 금연송 3집 앨범을 만들게 된 사연, 그로 인해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된 이야기, 게임중독이 된 아이들을 위해 게임제작과를 만들어 잘못된 취미생활을 적성으로 이끌어 자연스레 게임과 진로를 연결지게 하였다는 이야기였다.</p> <p>우선 이날 방송은 교장선생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 근엄, 교과서적인 이야기하고는 먼 말투와 생각의 전환으로 방송의 몰입은 매우 좋았으며, 좋았던 방송 몰입만큼이나 시청자나 교육자로 하여금 요즘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소통할 수 있는지, 아이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방식이 보다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끔 하는지 가르쳐주고 생각을 가지게끔 해주었다고 본다.</p> <p>또한 전체적인 방송전개는 부담이 없고, 가볍고, 즐겁고, 재미있었지만, 그와는 반대로 공부와 전부가 아닌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교감이나 스킨십 놀이가 얼마나 많은 변화와 그들의 숨은 재능을 찾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방송호</p>	<p><허참의 토크&조이>는 명사와 함께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의 삶속에서 인생의 참맛을 느껴보는 본격 토크 프로그램이다.</p> <p><토크&조이>의 기본섭외 원칙은 대중과의 소통이다. 단순히 인기가 많은 주인공보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진솔함이 있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방송을 제작하고 있다.</p> <p>아현정보고의 방송호 교장은 교장으로 서의 권위보다는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성교육에 매진하는 교육자로서 칭송을 받는 분이다. 학생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참 교육자의 모습과 그의 인생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준 바 있다.</p> <p>앞으로 시청자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주인공을 소개하여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		

	<p>교장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고 본다.</p> <p>특히 학교선생님이나 청소년관련단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이날 방송을 시청하였다면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해법 또한 영감을 얻었으리라 생각한다.</p> <p>이날 방송 시청으로 얻은 게 있다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란 것, 부모(또는 청소년지도자)들의 금지사항은 충고, 탐색, 해석, 판단을 부모가 주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삶은 재능이 아니라 용기로 산다는 것이다(장백기).</p>			
교양	<p>1월 16일 건강플러스의 ‘TV 주치의’ 시간에는 조기 치료와 예방이 중요한 소아혈액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나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에게도 아주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p> <p>전문의의 전문적인 차분한 설명과 유쾌한 농담을 통해 그의 연륜과 지위가 느껴져 시청자들이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설명 중간에 사회자의 적절한 질문과 전문의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었을 것이다. 전문적 내용이 많아 다소 지루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물흐르듯 끊이지 않는 설명과 질문 등으로 시청자들이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p> <p>다만, 전문용어가 다수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슬라이드의 글씨가 작고 설명이 자세히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많아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글자 크기를 조절하고 용어에 대한 설명을 자막으로 보여주는 등을 활용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건강플러스에서는 다양한 나이를 고려한 질병이나 질환 등의 적절한 예방법과 치료시기를 소개한다면 시청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을 것이다(오덕성).</p>	<p><건강플러스>는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적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으로 판단된다.</p> <p><건강플러스>에서는 하나의 주제 질환을 선정하여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치료, 예방을 중심으로 방송하고 있다. 증상이나 원인에 대한 설명 등에서 불가피하게 전문적인 부분이 등장하고 있고,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방송하지만, 의학 프로그램의 특성상 전문용어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나름 전문용어부분은 보다 더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과 비유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다.</p>	○	
교양	<p>1월 17일 방송된 전국이 보인다라는 추운 겨울에 어울리는 맛집과 놀거리를 시청자들에게 소개해 주는 시간이었다.</p> <p>생생한 현장 취재와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 맛집과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가볼만한 곳,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반적으로 적절한 내레이션이 돋보였고, 아나운서의 빠른 진행과 시민들과의 정감있는 인터뷰를 통해 시청자들이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을</p>	<p><전국이 보인다>는 전국 각 지역의 명소와 이색 현장, 화제의 현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p> <p>매주 각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방송제작은 주제와 어울리는 장소를 탐방하여 중간 멘트를 현장 제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영상, 음악으로 마무리하고 있다.</p> <p>말씀해주신 내용은 프로그램에 효율적</p>	○	

	<p>것으로 판단된다. 전국이 보인다라는 하나의 방송 내에 다양한 주제를 찾기 위한 제작진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p> <p>다만 ‘이철수 신작 판화전’의 소개는 아나운서의 개입 없이 배경음악에 작품만을 보여주는 새로운 시도였으나, 방송 흐름이 늘어지는 느낌이 있었고 사전 설명이 부족하였기에 시청자들이 다소 의아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사회자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나, 배경 음악의 적절한 변화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보다 수준 높은 영상효과의 적용과 소주제들의 적절한 시간 배분이 필요할 것이다(오덕성).</p>	<p>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제작팀과 협의하겠다.</p>		
<p>교양</p>	<p>시사플러스 (1/14)에서 ‘4.13총선 총청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총선문제를 다루었다. 시사프로그램으로 새해의 첫 방송 주제를 시청자의 관심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였다고 본다. 선거일정, 선거구 확정 문제 등을 적절한 자료화면과 도표를 활용하여 유의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총선 현안 문제를 여야 정당의 시당위원장 의견과 시민단체, 행정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인터뷰를 취재하였고, 소수당의 의견도 비중 있게 다룸으로서 균형 있고 공정하게 프로그램을 이끌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총선의 쟁점분석으로 야권의 신당 창당 추진에 따른 변수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선거구획정에 따른 대전/총청권 의석수 증가를 논하였으나, 19대 국회의 법안처리 부진(국회선진화법)과 민생문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정치(인)에 대한 냉소, 불신보다는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부각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김명수).</p>	<p>2016년은 선거의 해이다. 선거 기사가 여러 매체에서 다양하게 생산, 유권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보도국에서 제작 방송되는 선거관련 뉴스 이외에도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선거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작에 임하겠다.</p>	○	
<p>보도</p>	<p>2016년 대전MBC 주요기획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년에도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m-Story를 통해 미리 예고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우선 과학도시 관련 <한국의 과학자들>과 <노벨과학상 이야기>는 대전지역의 주제이기도 하며 일반 시청자/청소년 교육용으로도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기대가 크다. 방송에 정일도 미리 공지하면 좋을 듯하다. 심층기획보도인 <총선 선택 2016>은 타방송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룰 주제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대전MBC만의 차별화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해 뉴스데스크의 요일별 기획코너가</p>	<p>보도국에서는 올해도 다양한 기획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4.13 총선에 주력해 정치 관련 기획보도에 역점을 둔 뒤 총선 이후 ‘힘내라, 원도심’, ‘마리한화’ 등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새로운 코너를 준비하고 있다.</p>	○	

	금년에도 지속되는지? 화요일 ‘톡톡 과학 기술’을 금년 1월에는 볼 수 없었다. (김명수).			
교양	그동안 “토크 & 조이” 프로그램에 다양한 전문가 150여명 출연하였다. 인기연예인, 숲과 생태전문가, 뇌과학자, 판소리꾼, 소설가, 패션규레이터,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센터 진요한 소장 등 많은 분이 토크 앤 조이에 출연손님으로 등장하였다. 30~40대 주부에서 손주를 둔 70~80대 까지 남녀노소 시청자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청자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출연자 섭외로 프로그램의 품격을 제고해주길 당부드린다. 시청자에게 자신의 가족과 나를 발견하고 이웃과 함께 따뜻한 사랑과 감동을 공감하는 교양 프로그램으로 흥련하길 바란다(한찬희).	토크 앤 조이 출연자들이 단순히 본인들의 신변잡기가 아닌 시청자들의 가슴 한 곳 뭉클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따뜻한 가슴을 지닌 분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노력한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 번 각인 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사랑과 감동을 전달하겠다.	○	
보도	시사광장(1월 24일)에서 ‘제20대 총선, 충청권 판세는?’ 는 제목으로 금년 총선에 관한 전망과 그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전체 구성을 살펴보니 전반 10분 정도는 선거구 확정 문제점, 15분 정도는 국민의당 문제, 나머지를 충청권 국회의원 향배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선거구 확정 문제와 국민의 당 문제는 중앙방송과 여타 언론매체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던 터라 꼭 시사광장에서 다루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정작 충청권 관련 문제는 전체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논의구조를 확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본다. 지역에서 관심 가질만한 역량 있는 정치인도 있을 것이고 새로 등장하는 신인급 정치인은 누구이고 등등 유권자들이 관심 갖고 지켜볼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주제와 맞게 구성면에 있어서도 소주제도 잘 선택하여 소주제별 적절한 시간 안배도 필요해 보인다(김형주)	선거구 확정 문제는 충청권의 수십 년 된 영원이 이뤄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주제라고 생각했고, ‘국민의당’이 현재 시점에서 충청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존재감 또한 전국적인 현상과 다를 수 있기에 별도로 짚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전반적인 판세를 점검하는 토론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정치인이 누구이고 눈여겨볼 신인 정치인이 누구인지 등을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방송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급되지 않는 후보 측의 불만을 살 수도 있기에 가급적 피할 밖에 없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교양	‘생방송 아침이 좋다’ 코너에 주간 뉴스 브리핑이 있다. 한 주간의 뉴스를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정리를 해 주고 있어 유익한 코너라고 생각한다. ‘아침이 좋다’에 제안을 드린다. 청년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 많이 접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코너를 신설하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면 좋겠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다양한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종합 생활정보 매거진 프로그램이다. 금요일에 방송되는 주간 뉴스 브리핑은 다시 돌아볼만한 지역의 뉴스를 종합 정리하는 코너이다. 긍정적인 뉴스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다.	○	

	<p>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선정하여 지역기업도 소개하고 청년들이 맡아 하는 일 속에서 그들의 꿈과 노력을 어떻게 펼치는지 영상으로 전달해주면 좋겠다. 더불어 구직과 구인의 가교역할을 프로그램이 담당해주면 좋겠다(유덕순).</p>			
<p>보도</p>	<p>선거철이다. 선거 관련 뉴스도 많이 접할 것이라고 본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우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세대별, 대상별 공약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년층, 장년층 문제를 어느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소개를 하면 판단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 후보자 공약을 심도 있는 취재로 유권자에게 정보를 주는 기획뉴스가 있으면 좋겠다(유덕순).</p>	<p>이번 선거와 관련해, 정치 관련 뉴스를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시청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집중분석 코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단순한 경쟁구도의 소개가 아닌 공약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준비하겠다.</p>		
<p>보도</p>	<p>‘선거의 해’라서 방송사별로 선거방송을 기획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타 방송사와 차별화된 선거방송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환경, 도시재생, 취업 등 지역의 현안문제나 현안사업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어느 후보가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 지역민들을 위해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지역을 위해 열심히 땀 수 있는 의원을 뽑을 수 있게 의원별 정보를 제공해주면 좋겠다.</p> <p>또 하나는 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땀 흘리면 유권자들이 냉엄하게 판단한다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사례를 모아 방송을 하게 되면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본다(오덕성).</p>	<p>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권의식을 발현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 또한 공약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p>		
<p>기타</p>	<p>청년 해외 일자리찾기 프로젝트인 코이카 박람회를 코이카와 대전MBC가 공동주최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년 일자리사업 프로젝트는 요즈음 청년실업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한데 매우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된다.</p> <p>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일회성 보다는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p> <p>이 프로젝트의 고객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p> <p>고객은 단순히 젊은 청년들에게 국한된 것</p>	<p>대한민국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중남미지역에서 교육, 보건의료, 공공해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국제원조를 하고 있다.</p> <p>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다양한 일자리가 파생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도 갖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기도 한다.</p> <p>코이카박람회는 이러한 코이카가 펼치</p>		

	<p>은 아니다. 고객은 학생들의 부모님과 당 해지역 기업들도 있다. 이 프로젝트를 젊은 학생, 부모, 지역기업 등으로 외연을 확대하여 진행을 하면 좋겠 다. 충남대, 선문대 등 지역대학에서도 지역선 도사업으로 대학생들의 해외 일자리 연계 사업이 있다. 이것도 참고하면 좋겠다(오덕 성).</p>	<p>는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외지원사 업과정에서 파생되는 해외 일자리를 학 생, 청년 등 지역민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며, 국내에 한정된 시각을 좀 더 글 로벌하게 확대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미처 해외로 눈을 돌리지 못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도 세계시장 진출에 대한 안목도 넓히고, 과학도시 에 걸맞게 과학기술을 접목한 ODA사업 에도 지역 벤처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행사는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또는 학술적 박람 회와는 다르게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 나아가 참관하는 학생, 청년, 어린이, 중장년 등 전 연령층에게 보다 넓은 세 계에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꿈을 제 공하고자 한다.</p>			
<p>보도</p>	<p>선거 토론 방송을 보면 패널들이 대부분 남성들이다. 여성 패널을 발굴하여 투입했 으면 좋겠다. 역량 있는 여성패널을 추가 하면 프로그램이 빛날 것으로 본다(한찬 희).</p>	<p>여성 패널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 이겠다.</p>		○	
<p>교양</p>	<p>요즘 우리나라의 리우 올림픽 아시아 축구 예선 경기의 지상파 tv 중계방송을 보면서 눈에 띄는 우리말 표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살펴본다. 경기 시작을 앞두고 캐스터와 해설자 사 이에 주고받는 말 가운데 상대팀 전력 분 석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경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라는 표현이다. 위의 문장이 어색하게 들리는 것처럼 외 래어나 외국어가 우리 국어 문장에 미친 그릇된 영향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피동 표현”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말에서 피동표현이 많아진 것은 영 어나 일본어와 같은 외국어 교육의 영 향이크다고 할 수 있다. 앞의 예문에서 는 ‘보입니다’ 만으로도 의미전달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보이다’ 와 ‘~어지다’ 라는 2중 피동형태를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앞의 경우에는 ‘오늘 경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 입니다’ 로 바꿔 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노래 가 많이 불리워 집니다’ 라든가 ‘아직도 개선 되어져야 할 점이 많습니다’ 와 같은 문장 역시 모두 불필요한 피동 형태로 표현 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요즘에는 이 노래가 많이 불 립니다’ 그리고 ‘아직</p>	<p>말씀해주신 내용은 아나운서와 프로그 램 진행자, 리포터 등 출연진들이 교육 과 더불어 숙지하여 방송에 반영하겠다.</p>		○	

<p>도 개선돼야 할 점이 많습니다’ 와 같이 고쳐 말해야 우리말다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p> <p>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동 표현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p> <p>또 하나, 스포츠 중계방송이나 요즘 대세인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말 ‘~와 같다’ 라는 표현.</p> <p>‘ ~ 같다’ 의 사전적 의미는 ‘same(동일)의 의미로 똑같은을 얘기 할 때 ’ ~같다 ‘ 라고 사용한다. ’ 서로 다르지 아니하고 하나 이다 ‘ 또는 ’ 추측이나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내는 말로도 붙여 쓴다 ‘ 고 되어있다. 하지만 확실한 결론이나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아무 곳 에서나 ‘~같다’ 라는 종결어미를 남발하게 되면서 자칫 화자의 자신감 결여로 비칠 수도 있고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방송언어는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 갈 수 있어야 하고 어법에 맞는 정확한 표현을 해야 한다(김학선).</p>				
--	--	--	--	--